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

조 호 연**

1. 들어가는 말
2. 제정 러시아 및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1860~1938)
 - 가. 연해변강주 지역의 러시아로의 편입
 - 나. 시베리아내전 종결까지의 기록관리
 - 다. 시베리아내전 종결 이후의 기록관리
3. 2차 세계대전 직전 및 전쟁기의 기록관리(1938~1945)
 - 가. 기록관리기관의 소속 변경
 - 나. 연해변강주 기록물의 소개(疏開) 작업
 - 다. 중앙국립공동기록관의 설치
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록관리
 - 가. 연해변강주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
 - 나. 중앙국립공동기록관의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이전과 발전
5. 나오는 말

주제어 : 러시아국립공동역사기록관, 단일국가기록фон드, 연해변강주, 블라디보스토크, 게오르기예프스키, 시베리아내전, 내무인민위원회, 기록관리총국, 연해변강주 기록관, 톰스크, 하바로프스크

* 본 연구는 2005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둡니다.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주요 논저 : “전환기의 러시아 기록보존소”, 『기록보존』 9호(1996);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10호(2004);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2004).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들어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각급 공공기관에 자료관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44개 중앙부처에서 일하게 될 기록전문직 공무원들이 선발되었다. 또한 전자기록물이 널리 보급되는 현실과 맞물려,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 등 우리나라의 전자기록물 관리 분야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 진다고 할지라도 만약 기록관리와 관련된 인문학적 주제들이 소홀히 취급된다면, 우리는 기록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과학기술이 윤리적인 토대 위에 서지 않을 때에는 인류의 발전과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그만큼 기록관리는 인문학 분야로부터 계속해서 자양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의 발전의 역사에 대한 논의를 기록학 분야의 인문학적 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정착되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편의 논문이 우리나라에

서 발표된 적이 있다.¹⁾ 그러나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연해변강주²⁾ 등 극동 지방의 기록관리업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글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³⁾ 더구나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1991년 12월

- 1) 조호연, “러시아의 기록보존업무,” 『역사비평』 36호 (1997), 118~127쪽;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호 (2003.4), 75~105쪽; 방일권, “러시아혁명과 아키비스트, 1917~192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2004.6), 23~42쪽; 조호연,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제10호 (2004.10), 324~369쪽; 조호연,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 (2004.12), 23~39쪽.
- 2) 러시아 연방의 행정구역에는 공화국(Republic), 변경주(Krai), 주(Oblast), 자치주(Autonomous Oblast), 자치구(Autonomous Okrug) 등이 있다. 연해변강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는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흔히 ‘연해주’로 불리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크라이’(Krai)와 ‘오블라스치’(Oblast)를 구분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문 연구자들 중에 ‘변경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의 연구자들, <http://russkii.hanyang.ac.kr/menu3/region/3.htm>, 검색일 2005년 10월 1일), ‘변강주’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한종만, 이상수, “러시아연방 7개 연방구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6집 (2003), 233쪽. 러시아 행정구역 명칭인 ‘크라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변구’, 중국에서는 ‘변강구’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변강’으로 각각 번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식 교수는 우리말에서 ‘구’의 개념이 ‘주’보다는 하위개념이므로 변구 혹은 변강구란 번역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북한의 번역인 ‘변강’이 ‘크라이’의 성격을 충실히 표현하면서도 남북한 간의 용어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원식,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 일신사, 1998), 58-59쪽. 이 글에서는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하여 강제 이주되기 전에 고려인들이 ‘변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크라이’를 ‘변강’으로 옮기고자 한다.
- 3) 러시아에서도 현재 연해변강주의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극동 지방의 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도 불과 3년 전에 출간되어 나왔을 정도이다. Н. Н. Бендик, *Ста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рхивной служб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1920-е гг.* (Хабаровск, 2002). 러시아 연구자들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인 계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트로이츠키야(Н.А.Троицкая)는 기록관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극동지역의 10월혁명 및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사 위원회”(약칭 ‘달리스트파르트’, Дальистспарт)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1930년대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극동 지방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제 겨우 출발단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부터 연해변강주에 소장된 기록물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우리는 연해변강주의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래 글에서 연해변강주의 기록물관리업무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정 러시아 및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1860~1938)

가. 연해변강주 지역의 러시아로의 편입

러시아인들은 16세기 후반의 이반 뇌제 집권기에 우랄산맥을 넘어 카잔한국, 아스트라한한국, 시베리아한국을 점령한 이래,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이미 17세기 중반에 태평양 연안에 다다랐고, 1689년에는 동시베리아에 있는 네르친스크에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을 청 정부와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러시아인들은 캄차카 반도에 촌락을 건설하는가 하면, 18세기 들어서는 러시아-아메리카회사라는 국책회사를 통하여 쿠릴열도에 대한 경제적인 독점권을 확보하였다.⁴⁾

있다. Н. А. Троицкая, “Об уровне разработки истор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ны: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Владивосток, 2003), pp. 55~56.

4) 시베리아의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16세기에 우랄 산맥을 넘은 이후부터 40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 대상

러시아인들이 오늘날의 연해변강주 지방에 등장하게 된 데는 네벨스코이(Г. И. Невельской)의 활약이 컸다. 그는 군 수송선인 바이칼호를 타고 캄차카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 도착한 다음, 사할린 연안 서쪽을 따라 탐사활동을 하다가 1849년 7월 11일에 아무르강 입구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아가 그는 사할린과 아무르강 하류 사이에 위치한 7.5km 길이의 해협⁵⁾을 발견하여 사할린이 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아무르강 하구로부터 약 40.7km 들어간 장소에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Николаеск-на-Амуре)라는 초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 인근에다가 러시아 국기를 내걸고는 타타르 해협 연안과 사할린 섬으로부터 조선 국경에 이르는 연해변강주 지방이 러시아에 편입되었다고 선포하였다.⁶⁾ 그에 따라 이르쿠츠크에 근거를 두고 있던 동

영토 역시 아주 광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 이전의 시베리아 및 극동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몇몇 주요 연도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08년 : 토볼스크시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주(Сибирская губерния) 설치

1822년 : 시베리아주가 서시베리아총독부(Западно-Сибир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와 동시베리아총독부(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로 분리

1884년 : 하바로프스크시를 중심으로 한 프리아무르총독부(Приамур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 설치

1909년 : 연해주(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와 알렉산드로프스키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할린주, 그리고 페트로파블로프스크시를 중심으로 하는 캄차카주로 분리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А. А. Торопо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деление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XVI в. - 1917 г.,” in Н. А. Троицкая, А. А. Торопов(ред.)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Из истории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Владивосток, 1999), pp. 11~20.

5) 이곳은 네벨스코이를 기념하여 “네벨스코이 해협”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6) 네벨스코이의 이런 자의적인 행동은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인 네셀로드(К. В. Нессельрод)의 질책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1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기는 일단 게양되면 내려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시베리아 총독인 무라비요프(Н. Н. Муравьев)는 51가구의 농민들을 징발하여 아무르강 하구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1855년에 니콜라이 1세가 사망하고 그를 뒤이어 알렉산드르 2세가 제위에 오른 다음,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유럽 러시아 지방의 여러 주에 거주하던 국유지 농민들을 아무르 지방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특혜를 베풀어주었다. 그리하여 1859년에는 240명, 1860년에는 524명, 1861년에는 249명의 러시아인들이 각각 아무르 유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1858년 5월 18일에 청과 러시아 사이에 아이훈 조약이 체결되어 아무르 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정하게 되었고,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에서의 항해는 오직 이 양국의 선박에게만 허용되게 되었다.⁷⁾ 나아가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는 1860년부터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을 지닌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청조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침내 1860년 10월 2일에 북경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만이 아니라, 1등 대위인 리하초프(И. Ф. Лихачев)가 러시아 영토로 선포한 포시에트만까지 자국 영토로 편입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연해변강주 지방 전체가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⁸⁾

7) 러시아 정부의 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동시베리아 총독인 무라비요프는 아이훈 조약 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백작 작위와 더불어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Н. 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라고 불리게 되었다.

8) 러시아인들이 연해변강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А. Б. Широког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ны 1904-1905* (Минск : Харвест, 2003), pp. 5~44; David Schimmelpennick van der Oye, *Toward the rising sun : Russian ideologies of empire and the path to war with Japan* (DeKalb, Ill.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1), pp. 112~117.

나. 시베리아내전 종결까지의 기록관리

연해변강주 지방이 러시아에 편입된 이후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지방에서는 열강들의 제국주의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제정러시아 정부 역시 이 경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극동 러시아 해군력의 중심지가 된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지방의 행정 업무도 복잡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생산되는 기록물의 양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20세기 초 무렵에 연해주에는 각종 기록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연해주 총독 기록관, 블라디보스토크항 기록관, 도시 자치 기록관, 국경위원회 기록관, 쟈스트보 기록관 등이 있었다. 특히 1904~05년에 벌어진 러일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함대에서의 기록관리업무가 자극을 받아 발전할 수 있었으므로, 블라디보스토크항 기록관은 이 지역의 중요한 기록관리 기구가 되었다.⁹⁾ 그런데 기록관이 생겨나던 이 시기에는 각종 공공기관 기록관들 사이의 협조체제는 가능했지만, 다양한 기관과 기구의 фонд들을 통합한 단일한 기록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기록물의 보존 여부는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결과라기보다는 업무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10월에 발발한 러시아 혁명은 기록관리 업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1918년 6월 1일에 공포된 “기록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은 단일국가기록фонд(Единый Госуда

9) А. И. Костанов, “К вопросу о периодизации истор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дореволюционную эпоху (XVII-начало XX вв.),”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ны :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 p. 4.

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ЕГАФ)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¹⁰⁾ 그렇지만 이 법령은 멀리 태평양에 접해 있는 러시아 연해 지방에서는 아직 효력을 지닐 수 없었다. 더구나 러시아 혁명 직후에 극동 지방은 1918년 4월에 일본군이 상륙하고, 그 해 6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력을 탈취하는 등 극심한 정세 변화를 겪고 있었다. 또한 1920년 4월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완충 역할을 맡은 극동공화국(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 ДВР)이 생겨났고, 1921년 5월에는 소위 “메르쿨로프 정변(政變)” (Меркуловский переворот)이 발생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극동 지방의 여러 기록관에 소장되어 오던 기록물들은 커다란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캄차카의 기록관들에 소장된 일부 기록물은 국제간섭군의 일원인 영국군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형편이었다.¹¹⁾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립극동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연해 지방의 기록물 보존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 운동에서 중심역할을 떠맡은 사람은 국립극동대학의 역사철학부장으로 있던 게오르기예프스키(A. П. Георгиевский)였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의 역사철학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문헌대학을 졸업하고 1918년 말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가 마침 국립극동대학이 설립되자 역사철학부장직을 맡게 된 학자였다. 극동의 러시아인과 소수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그는 이런 역사 지식을 기록관리 업무

10) 이 법령의 의미 및 그 전문 번역은 다음 줄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조호연,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341~2쪽.

11) Э. В. Ермакова, “Зарождение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риморье,”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ом I (1996), p. 6.

와 결합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기록관리 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게오르기예프스키는 대학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학 내에 권력 기관의 대표자들이 포함된 기록관리위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대학협의회는 게오르기예프스키의 제안을 지지하였고, 이것은 다시 극동공화국 인민계몽소비에트에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록자료의 보관을 위한 위원회가 연해주에 창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민계몽소비에트는 교사확보 문제,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특히 재원의 결핍 등의 수많은 문제가 산적한 터에 기록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창설할 여유를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게오르기예프스키를 중심으로 하여, 마트베예프(З. Н. Матвеев) 국립극동대학 도서관장, 그레벤쉬코프(А. В. Гребенщикова) 교수, 포포프(В. И. Попов) 부교수 등은 기록관리위원회 창설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마침내 1920년에 “주(州) 기록관리위원회 창립을 위한 발기사무국”(Инициативное бюро по учреждению Областной архивной комиссии)이라는 이름의 민간기구를 창립하였다.

발기사무국은 민간기구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관청 기록관에 있는 서류의 보존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기사무국의 구성원들은 비공식적으로 1920~21년에 요새사령부, 연해주 총독, 구(區) 재판소, 주 켈스트보기구 등 주요 관청에 있던 기록물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런 기록물의 높은 가치를 확인하고, 그런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¹²⁾

그와 동시에 발기사무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발기사무국은 1921년에 극동공화국의 인민계몽부에 다가 기록관리위원회를 창설하고 그에 관한 지위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두어, 극동공화국 정부는 1921년 말에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된 위원회¹³⁾는 주의 인민계몽부 관할 하에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연해주의 기록관리업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자치법규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지방 기록관과 기관에 소장된 기록물의 수색, 수집, 체계화, 학술평가, 출판, 둘째, 지방 인민들의 역사화 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색 및 정보의 수집, 셋째, 변강주에 존재하는 국가적인 기념문헌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호 등이었다.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에는 조직부, 기술부, 학술부 등 세 부서가 설치되었다. 조직부는 국가, 사회, 개인 기록물, 필사본 수집 및 고판(古版)에 대한 등록업무를 수행했고, 기록물의 보관조건과 질서를 통제했으며, 학술적인 목적을 지닌 조사와 진행, 그리고 아키비스트들의 교육을 위한 조직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주민들에게 주의 역사, 기록관리업무를 홍보하는 일과 문서로 된 고판 문헌들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술부의 일차적인 업

12) *Ibid.*, p. 7.

13) 연해 지방의 기록관리기구는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이 기구는 1921-22년에는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ная архивная комиссия), 1923년부터 1926년까지는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Приморское губернское архивное бюро), 1926년부터 1932년까지는 “블라디보스토크관구 기록관리사무국(Владивостокское окружное архивное бюро), 1932년부터 1938년까지는 연해주청 산하의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Приморское областное архивное бюро)이었다.

무는 기록관리위원회로 이관된 기록물들의 정리작업이었다. 또 이 부서는 폐기 대상 기록물로부터 보관을 위한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들을 분리하고, 폐기되는 문건과 보관에 적합한 문건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기술(記述)작업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출판부는 학술적인 등록작업, 문서 사료에 대한 기술 및 전면적인 연구를 주관하였다. 또한 이 부서는 역사적, 법률관련, 학술-문헌관련, 종교관련 및 각종 필사본, 서류, 훈장, 조서(調書), 편지, 비망록, 일기, 자서전, 지도, 계획서 등에 대한 수집, 기술,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질의서, 설문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해야 했다. 그리고 문헌사료, 기록물 목록, 연구소, 학술작업을 출판하고, 특별한 정기간행물인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 통보』(Извести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ной Архивной комиссии) 등의 출간도 학술출판부의 업무였다.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게오르기예프스키는 각종 기록관의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록물분석을 위한 위원회의 일반 지침”(Общая инструкция комиссиям для разбора архивов)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공공 기록물을 조사할 때 해당 기록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기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록물 생산자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문건은 기록물의 현용성의 종료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원회에 넘겨져서 보존여부를 평가받아야 했다. 또한 “일반 지침”은 작업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모든 문건에 대한 세세한 매수별 검토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1811년 6월 25일 이전에 작성된 모든 자료들은 폐기되어서는 안 되었고, 전부 보관되어야 했다. 19세기 전반부에 작성된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주의가 기울어져야 했다.

이 지침의 작성자인 게오르기예프스키는 기록물을 세세하게 분류하였다. 가령, 국제관계에 관한 자료, 각종 법률,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들의 작성에 관련된 자료들, 정부 기관의 설치, 확대, 폐지에 관한 자료, 자치기구 및 사회조직에 관한 자료, 국가 생활과 인민 생활 및 문화의 모든 측면에 관한 총괄적인 일람표와 통계적인 자료, 국가 경제의 재정적 분야 및 기타 분야의 발전에 관한 자료, 육군 및 해군에 관한 자료, 교통 및 통신,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 의료, 사회 복지 및 안전상태 및 발전에 관한 자료, 토지와 산업, 교육, 그리고 개별 계급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관한 자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운동 및 경향에 관한 자료, 풍속과 관습 상태에 관한 자료,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위인들의 생애에 관한 자료 등이 그러한 예였다.¹⁴⁾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과제는 문헌 사료의 수집, 정리, 보관이었지만, 그 구성원들은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자 고고학 분야의 자료도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고학적 유산을 연구함으로써 아무르강 지방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관리 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레벤쉬코프 교수는 『아무르 지방의 고고학 자료 수집을 위한 강령적 문제들』이라는 제목을 지닌 소책자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는 극동의 서지(書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술적인 관심 영역을 확대하였다. 마트베예프는 “극동의 서지 작성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서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서적들의 기술 체계 및 그 체계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는 1922년에 벌써 많은 중요한 성과를 일구어

14) Э. В. Ермакова, “Зарождение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риморье,” pp. 8~10.

냈다. 위원회는 과거의 극동 인민의회와 언론관련 업무를 다룬 보도부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술(記述)작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정교감독관구 협의회, 해군성, 주 켈스트보, 블라디보스토크의 시자치회 등 중요한 기록관들에 소장된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록학의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기록학”, “소비에트 러시아의 기록관리 업무”,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개최된 제1회 자연사 대회에 관하여”라는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⁵⁾

다. 시베리아내전 종결 이후의 기록관리

1922년 11월 14일에 극동공화국의 인민의회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과의 통합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극동공화국은 소멸되고 이 지방에 다시 소비에트 권력이 들어섰다.¹⁶⁾ 이제 1918년에 공포된 “기록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통하여 극동 지방에서도 기록물의 중앙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극동공화국 시절에 기능하던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ная архивная комиссия)는 1923년 3월 1일자로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Приморское губернское архивное бюро)으로 재편되어 기록관리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 기관의 책임자로 다시 게오르기예프스키 교수가 임명되었다. 또한 그레벤쉬코프 교수는 조직부서를 지휘

15) *Ibid.*, p. 11.

16) 극동공화국이 소멸된 이후부터 1926년까지 극동 지방에는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주가 성립되었다. 그 속에는 자바이칼, 프리바이칼, 아무르, 프리아무르, 사할린 섬의 북부를 포함한 프리모리예(연해), 그리고 캅차카 구베르니아(주)가 포함되었다.

했고, 마트베예프는 출판부서를 지휘하는 등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소비에트 권력이 등장한 이후에도 기록관리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많은 기록물들이 기록관리사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극동의 사회생활사 자료를 다수 포함한 극동 인민회의의 기록물, 1921년의 극동에서 출간된 서적들의 역사와 상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출판 관련 지방사무국의 기록물, 17~18세기의 서시베리아와 바이칼 동쪽 지방에서 발생된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기록관리사무국으로 인계되었다.¹⁷⁾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스페틀라나 거리 135번지에 위치한 크지 않은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출판 및 조직 활동을 위해서는 여전히 국립극동대학의 협조를 받았다. 사무국이 기록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фонд들은 대체로 극동공화국의 인민회의, 보도부, 프리아무르총독부, 블라디보스토크보안부서, 포병 여단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무국은 이런 기록물 이외에도 해군사령부, 소상공(小商人) 자치회, 이주민관리국 등에서 기록물을 발굴, 수집하고 이관받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23년 말 무렵이 되면 117,639 문건으로 된 30개 фонд가 사무국에 등록되었고, 13만 5천 문건으로 된 30개 фонд가 아키비스트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후에도 매년 등록되고 확인되는 фонд의 양은 급증되어, 1929년에는 417개의 등록된 фонд와 972개의 확인중인 фонд가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의 아키비스트들은 이러한 기록фон드들을 역사보존기록(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과 10월혁명(Архив Октябрьской

17) Э. В. Ермакова, “Зарождение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риморье,” p. 11.

революции) 관련기록,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기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기의 기록물들은 정치와 법, 인민 경제, 문화와 관습, 군사 등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연해 지방의 기록관리 업무의 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아직 기록학과 관련된 참고 문헌이 부족하였고, 기록물 폐기를 위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기록물 폐기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던 소련은 심각한 종이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기록물들도 허다히 폐지공장으로 넘겨지곤 하였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의 직원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기록물의 불법 폐기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이들은 1926년 1월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토지국 삼림과(森林課)의 기록물을 발견하는 등, 그 해 동안만 해도 1915년에 생산된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의 보건부 자료, 1911-1920년 기간에 생산된 사설 은행의 회계장부, 1919년에 생산된 수찬의 철로 부설관련 자료, 블라디보스토크시 자치기구에 관한 자료들을 불법폐기 직전에 구할 수 있었다.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은 기록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폰드의 정리와 기술작업을 하는 동시에, 출판활동과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대중화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기록관리사무국은 인원 부족 때문에,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 통보』(Извести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ной Архивной комиссии)같은 간행물을 계속해서 발간해낼 수 없었지만, 기록관리에 종사하던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한 논문을 꾸준히 집필하였다. 가령, 게오르기예프스키를 뒤이어, 내전과 극동 지방의 파르티잔 운동에 참가했다가 1926년 3월에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이 재편된 기구인 블라디보스토크관구¹⁸⁾ 기록관리사무국의 책임자 자리에 오른 골리온코(В. П. Голионко)는 “연해지방에서의 반동과 지하활동의 시기 : 1906-1916년”라는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 사무국의 부책임자로서 활동을 계속했던 게오르기예프스키는 1905-1907년 혁명에 관한 두 편의 논문과 극동에서의 러시아인들에 관한 논문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극동 지방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태평양의 별』(Тихоокеанская звезда)과 『붉은 기치』(Красное знамя)에는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22편이 게재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관구 기록관리사무국 역시 기록물 수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작업은 극동 이주국이 이주민 관련 자료의 연구를 위하여 조직한 연해지방 학술조사단의 활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비취(В. М. Савич), 아르센예프(В. К. Арсеньев), 야르모쉬(Я. М. Ярмош) 등이 참가한 이 조사단은 연해주의 행정과 이주집단 등의 폰드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센예프는 『연해 지방의 민족』, 야르모쉬는 『연해 지방에의 정착』이라는 저서를 집필할 수 있었다. 또 기록관리사무국은 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가령 모스크바와 극동의 공산당사편찬위원회(Истпарт), 그리고 혁명박물관에다가 혁명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복사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1926년 이후에도 연해 지방에서의 기록관리 업무의 여건은

18) 극동주는 1926년 1월 4일에 극동변강주로 재편되었고, 그 속에 블라디보스토크관구가 포함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관구는 영토적으로 보아 오늘날 연해변강주에 속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19) Э. В. Ермакова, “Зарождение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риморье,” p. 17.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우선 공간 확보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아직까지 사무국은 기록물의 보존에 적합한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 당시에 사무국은 해군감시소에 소속된 코슈 골목길의 독립건물 한 채와 스페틀라나 거리 135번과 125번지에 위치한 건물을 사용하였다. 기록관리사무국은 1935년 9월에 가서야 연해주집행위원회와 블라디보스토크시 소비에트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볼로다르 거리 22번지에 위치한 폴란드 카톨릭성당 건물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이곳도 기록물을 보존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고, 일부의 기록물들은 그냥 마루 바닥에 놓인 채로 보관되고 있었다.²⁰⁾

3. 2차 세계대전 직전 및 전쟁기의 기록관리(1938~1945)

가. 기록관리기관의 소속 변경

1930년대 들어 소련은 국내외적인 위기를 탈출하고자 스탈린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1934년에 발생한 키로프 암살 사건을 시발로 하여 1936년부터 1938년 사이에는 내무인민위원부가 주도한 대숙청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은 기록관리 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38년 4월 16일자 소련 최고소비에트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련의 기록관리기관은 이전의 인민교육부 관할로부터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 소속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1938년 9월에 소련의 중앙기록관리기구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

20) *Ibid.*, p. 18.

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СССР, 약칭 ГАУ НКВД СССР)으로 개칭되었다.²¹⁾

또한 이 시기에는 연해 지방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졌다. 1938년 10월 20일에 극동변강주는 연해변강주와 하바로프스크변강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연해주기록관리사무국은 연해변강주 기록관리사무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소련의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연해변강주의 기록관리기관을 기존의 인민교육부에서 내무인민위원부로 소속 변경시키는 작업은 1939년 2월부터 연해변강주 내무인민위원부에 속한 그비쉬안(M. M. Гвишиань) 보안부 소령의 감독하에 시작되었다. 1939년 5월이 되면 이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이 무렵에 연해변강주 국립기록관에는 300개의 폰드가 있었고, 그 중 87개의 폰드가 정리되고 기술된 상태였다. 이 외에도 이 기록관에는 약 1,800권에 이르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참고문헌과 750킬로그램에 달하는 각종 신문 자료가 소장되어 있었다.²²⁾

기록관이 내무인민위원부 관할로 들어감으로써 소련 전체의 기록관리기관은 정치적인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기록관리총국은 당장 1939년 9월 21일에 발표한 회람장(Ж-707호)을 통하여 향후 기록관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기에는 “오늘날까지 기록관에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기관들이 큰 실무적 관심을 보일 만한 많은 양의 자료들이 연구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은 채 남아있

21)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Москва : Российск. гос. гуманит. унт., 1994), pp. 174~178.

22) О. А. Колес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истеме органов НКВД-МВД СССР (1938-1962 г.),”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ны :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 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p. 36.

다.”라고 지적되었다. 나아가 이 회람장은 기록관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반소비에트 분자들이 소련 영토 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해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총국은 기록관에 소장된 자료에 따라 요주의 인물들을 정치적인 색채에 따라 27개 범주로 나누어 카드식 등록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1941년에는 독소전이 발발하는 등 긴급한 상황 속에서 중앙의 기록관리총국이 발표한 회람장의 명령을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독소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비밀 기록물에 근거하여 약 2만 9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리하였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했거나 그에 연루되었다고 규정되었는데, 그 속에는 과거에 헌병부서에 근무한 자들, 백군(白軍) 가담자들, 반혁명적인 백군 정부에 참여한 자들, 반소비에트 정당에 가입한 자들, 혁명 이전에 상인이었거나 차르 정부의 관리였던 자들, 1914~18년의 시기에 러시아의 서부 지방으로부터 도망친 자들, 외국으로 도망친 자들 등이 있었다. 물론 이들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기록관에 소장된 자료들만이 아니라, 『붉은 기치』, 『연해 지방 임시정부 통보』 등의 신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책임자가 발령한 명령,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의 명령, 연해 지방에서 발행된 공공기록물 등에 따라서도 수집되었다. 1945년에는 백군 계열의 망명자들에 관한 기록물, 즉 “망명자들을 돕기 위한 하얼빈 위원회”, “러시아 망명자문제를 위한 사무총국” 등의 조직들의 기록물이 연해변강주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반소비에트 분자를 확정하는 작업은 이들 폰드들에 포함된 자료와 하얼빈 백군 망명 출판 문헌 자료의 도움을 받아 수행될 수 있었다.²³⁾

나. 연해변강주 기록물의 소개(疏開) 작업

1930년대 들어 소련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이 내무인민위원부 산하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연해 지방에 보관되고 있던 기록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지역은 이미 1920년에 일본군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점령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극동 지방의 기록관리 여건이 이 당시에 극히 불만족스러웠다는 점도 이 지역의 기록물 이전이 논의된 원인이기도 하였다. 즉, 이 시기에 극동에는 기록관리를 위한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기록보존에 적합한 공간도 없었으며, 자격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의 서기국은 이미 1934년에 극동 지방의 기록물을 시베리아와 모스크바로 소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²⁴⁾ 이에 따라 최초의 본격적인 소개 작업은 1934년부터 1935년에 실시되었고, 두 번째 소개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된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23) 1922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인민혁명군과 파르티잔 부대에 의하여 장악되었고, 이로써 약 5년 동안 진행된 내전 및 국제간섭전쟁은 약 8만 명의 희생자를 낸 채 종결되었다. 새로운 소비에트 권력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약 15만 명에 달하던 극동 출신 러시아 망명자들의 대다수는 중국 영토 및 동청철도 부지로 옮겨갔다. 만주에 있는 하얼빈은 1945년까지 이곳의 러시아 망명자들의 중심이었다. Н. В. Егорова(ред.), *Города со столичной судьбой* (Хабаровск : Приаму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2003), p. 13.

24) К. Б. Абрамова, “Организация ЦГА РСФСР в г. Томске,”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ны :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p. 32.

이렇게 하여 시베리아로 소개된 기록물은 대체로 공화국 차원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은 국립극동대학의 학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되었고 1926년까지는 모스크바 이외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던 극동 지방의 유일한 기구였다. 따라서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에는 연해 지방만이 아니라, 캄차카와 사할린 등 극동 지방의 주요 기록물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194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톰스크, 옴스크, 미누신스크 등 시베리아로 소개된 기록물은 약 3만 문건에 달하였다. 또한 1942년 2월 26일에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그 해 7월에 약 7만 9천 문건이 톰스크로 소개되었다. 전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물론 소개(疏開)는 좋은 여건에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개의 폰드들이 한꺼번에 포장되기도 하였고, 등록 및 확인 작업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기록물 정리를 위하여 연해변강주 기록관의 직원들이 톰스크로 파견되어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그 이듬해에 돌아올 때까지 작업한 분량은 연해변강주에서 이관된 자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변강주로부터 시베리아로의 기록물 소개 작업은 1944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²⁵⁾

다.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설치

이처럼 극동의 많은 기록물들이 서시베리아로 소개되어 옴에 따라, 이곳에서의 기록물관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소련 인민위원회회의는 1943년 8월 2일에 공포된 법령을 통하여 러시아소비에트

25) O. A. Колес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истеме органов НКВД-МВД СССР (1938-1962 г.)," p. 38.

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국립극동기록관(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СФСР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ЦГА РСФСР ДВ)을 톰스크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연해변강주에서 소개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하바로프스크변강주와 치타주 등에서 옮겨온 기록물들도 소장되었다.²⁶⁾

톰스크에 설치된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초대 책임자로는 보안부 대위인 포민(Н. А. Фомин)이 임명되었다. 그는 역사기록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1926년부터 기록관리분야에서 일해온 기록관리전문가였다. 또한 1943년 10월 7일자로 톰스크 도시집행위원회는 칼 마르크스 거리 26번지와 바자르 광장 13번지에 각각 기록관을 위한 건물을 배당해주었다.²⁷⁾

출범시에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총직원은 11명의 대민봉사 요원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이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원을 51명으로 증가하여 승인하였는데, 그 중에 학술요원은 24명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도 게재되었고, 직원에 대한 처우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록관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1944년 2월 무렵에 기록관 직원은 학술직 및 기술직을 포함하여 18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 3명만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²⁸⁾ 소련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폰드의 자료든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26) А. А. Торопов, “Из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ом IV (1999), p. 1.

27) 1955년에 기록관은 바자르 광장의 건물 대신에 보스크레센스크 성당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28) К. Б. Абрамова, “Организация ЦГА РСФСР в г. Томске,” p. 34.

것”을 요구하였다. 일찍이 모스크바로 옮겨졌던 극동 펀드들도 이 기록관으로 옮겨졌고, 다양한 기록관들 사이에 흩어진 펀드들도 이곳으로 이관되도록 조치되었다.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조직은 연해변강주 펀드부, 하바로프스크변강주 펀드부, 치타주 펀드부, 비밀펀드부, 보충 및 등록부, 자료이용부, 학술참고문헌부, 재정경제부, 열람실 등으로 편성되었다.²⁹⁾

토크스크의 중앙국립극동기록관에는 설치시에 2백만 건 정도의 문건이 소장될 예정이었는데, 처음에는 약 30만 문건의 기록물이 관리되었다. 극동기록관의 직원들은 적극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1944년 6월에는 그 중 17개의 펀드가 완전히 정리되어 학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고, 총 11만 4천 문건이 기술될 수 있었다.³⁰⁾

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록관리

가. 연해변강주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연해변강주 기록관에는 소비에트 시기의 연해 지방의 역사 관련 기록물들이 대거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각급 부처의 기록물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작업장, 생활 용품 기업 등의 기록물들도 다량 들어왔다. 반면에 이 시기에는 연해변

29) A. A. Торопов, “Из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p. 5.

30) *Ibid.*, p. 6.

강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록물들은 타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1949~50년에는 백군 출신 망명자들에 관련된 6개 폰드와 총 1,291권으로 된 모든 백군 출신 망명자에 관한 출간 문헌이 하바로프스크로 이관되었다. 또 중앙국립극동기록관(ЦГА РСФСР ДВ)으로는 4개의 폰드가, 해군중앙국립기록관(ЦГА ВМФ)으로는 9개의 폰드가, 중앙국립군사역사기록관(ЦГВИА)으로는 43개 폰드가 이관되었다. 중앙에 있는 기록관들로 발송된 모든 폰드들은 혁명 이전에 생산된 것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여 1950년대 초 무렵에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던 많은 혁명 이전 기록물들을 타기관으로 이관하였다.³¹⁾

전반적으로 보자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파르티잔 운동에 대한 자료집을 준비하고, 소장 폰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내용을 책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해변강주의 전반적인 계획, 토지문제, 도시집행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 및 블라디보스토크의 역사에 관한 자료집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오피시”(опись)라고 불리는 소장 기록물에 대한 목록이 작성된 것도 1956년의 일이었다.³²⁾ 또한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소장된 기록물에 근거하여 『연해 지방에서의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는 책자도 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이 시기에 기록관리 업무의 홍보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박물관과 함께 극동의 혁명 운동에 대한 기록물 전시회를 수차에

31) О. А. Колес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истеме органов НКВД-МВД СССР (1938-1962 г.),” p. 39.

32) *Ibid.*, p. 40.

걸쳐 개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해변강주 기록관의 안정화는 스탈린체제의 전반적인 약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1938년에 기록관리기관이 내무인민위원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록물이 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시대라고 할지라도, 소련의 정보기관이 기록관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스탈린 비판이 있는 지 6년 후인 1962년에 기록관리기관은 1948년에 내무인민위원부(HKBD)의 후신이 된 내무부(MBD) 소속으로부터 소련 장관협의회 직속으로 변경되고 말았다.³³⁾

나.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이전과 발전

2차 대전 이후에 톰스크에 있던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상황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곳도 다른 기록관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총국의 지시에 따라 극동 지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많은 기록물들을 타기관으로 이관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는 326개의 폰드가 소련육군 중앙국가기록관과 소련육해군함대 중앙국립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군부대 및 군기관에 관련된 331개 폰드는 소련국립 육군역사기록관으로 옮겨졌다. 또 39개 폰드는 연해변강주와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위원회의 당 기록관, 아무르주 및 치타주 소련공산당 기록관으로 넘겨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33년으로부터 1940년 사이에 변강주, 주(州), 군(郡), 면(面)의 각종 기관 및 조직에서 생산된 405개 이상의 폰드들이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유태인자치구, 아무르주 및 캅차카주 국립기록관으로 이관

33) *Ibid.*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국립극동기록관도 새로운 기록물을 이관받았다. 소련 중앙기록관으로부터 극동에 소재한 기관들의 자료들 및 극동의 변강주 및 주 기록관의 기록물이 곳으로 이관되어 왔다. 이들 기록물들은 기본적으로 혁명 이전 및 1920년대와 30년대 초에 생산된 것들이었다. 또한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소련 10월혁명 중앙기록관(ЦГАОР СССР)와 소련 인민경제기록관(ЦГАНХ СССР)으로부터 약 4,300 문건의 기록물을 이관받기도 하였다.³⁴⁾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은 1950년대 들어 본격적인 기록물 정리사업 및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소장된 기록물 관리가 체계화되었고, 각종 자료집이 출간되어 나왔다. 1953년부터는 『사할린 북부에서 소련 권력의 승리(1917-1925)』, 『블라고베웬스크 100년』, 『극동 산업 복구를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 『극동에서의 국제간섭군과 백군의 분쇄』, 『극동혁명위원회』, 『극동에서의 문화 건설』 등이 출간되어 나왔다. 또 1958년 2월에는 마이크로필름 작업실과 자료 복원실이 설치되었다.³⁵⁾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그 도중에 소개(疏開)된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중앙국립극동기록관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이전(移轉) 문제가 자주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이미 1960년대 초에는 하바로프스스로 극동기록관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쿠바미사일 위기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주장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 1970년대 말에도 극동기록관을 하바로프스

34) A. A. Торопов, “Из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p. 6.

35) *Ibid.*, p. 7.

크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스크바와 시베리아의 학자들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장관협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런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이전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다시 극동기록관의 이전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때 연해변강주 공산당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극동 지방의 주요 학자들의 이전(移轉)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장관협의회는 드디어 1991년 2월 13일에 “툼스크시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시로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극동기록관의 이전에 관하여”라는 법령 96호를 통과시켰다. 또한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극동기록관은 1992년에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으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³⁶⁾ 법령 96호가 통과된 이후부터 기록물 이전 작업이 준비되기 시작하여, 1994년 1월에 기록물을 적재한 첫 번째 기차가 톰스크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까지 톰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된 기록물은 총 이송 예정 기록물의 약 3분의 2에 달하였다.³⁷⁾

36) 1997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자면, 러시아연방에는 총 2,200개소 이상의 기록관이 있었다. 그 중 16개소의 연방직속기록관, 32개소의 공화국소속 기록관, 12개소의 변경소속기록관, 134개소의 주소속 기록관, 2,060개소의 시 및 구 기록관이 있었다. В. П. Козлов,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оссии,” in *Архивы России :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осква :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1997), p. 8. 이를 통해 보자면, 연방직속인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의 위상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7) *Ibid.*, p. 8.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에는 현재 1722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에 생산된 극동 지방의 정착, 기반구축, 발전의 역사에 관한 다량의 폰드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 양은 49만 8천 문건 이상인데, 러시아 혁명 이전에 아무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치타주, 연해변강주 및 하바로프스크변강주에서 생산된 시군 및 지방자치기구(젼스트보), 법원, 검찰, 형무소, 군기관 등의 국가권력기구 그리고 재정-신용 및 통계, 세관, 교통 및 통신, 상공업, 농촌경제, 사기업, 교육, 보건위생, 사회복지, 사회조직 등 각종 기록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 기록관에는 소비에트 시기의 기록물도 2,000 폰드 이상이나 관리되고 있다.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한 직후부터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국립극동역사기록관의 기록물들은 톱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기록물이 옮겨온 1994년부터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부터 이곳 이용자의 수는 톱스크 시절보다 2~3배나 증가되었다. 1994년으로부터 2002년 사이의 기간에 극동역사기록관을 이용한 연구자의 수는 총 1,515명이었고, 그 중 외국인인 70명이었다.³⁸⁾ 이용자들은 주로 극동 지방을 연구하는 역사가들, 교육자들 등 학자들이었고, 대학원생들과 대학생들도 있었다. 또 국립극동역사기록관은 1996년부터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 통보』(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역기기록관 직원만이 아니라, 다른 국립기록관의 직원들, 이 지방의 학술원 및 고등교

38) E. M. Гончарова, “О Тематик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ГИА ДВ за 1994-2002 гг.,”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ны :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p. 52,

육기관의 학자들, 문화기관 직원들, 대학원생들과 대학생들 등 다양한 부류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의 주도로 이 지방의 아키비스트들, 사서들, 그리고 박물관 학예사들이 『1922년까지 러시아의 극동에서 발간된 신문, 잡지의 서지적 색인』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국립극동역사기록관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온 이후에 수십건의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에는 프리아무르 총독부 115주년 기념 전시회, 극동의 고등교육 100주년 기념 전시회, “극동의 기독교”, “러시아와 일본” 등의 주제들이 있었다. 또 기록관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150건 이상의 학술논문을 출간할 정도로 기록물을 활용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역사기록관은 정부기관의 역사, 토지이용문제, 정착지역 형성과정 등을 포함하여 극동의 국립 및 지방자치체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100건의 자료집을 준비하였다.³⁹⁾

또한 국립극동역사기록관은 각종 국제교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록관은 미국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대학과 공동으로 1996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기록관. 분과별 조직. 행정 체제. 기록물 보충의 원칙. 이용의 활성화”를 주제로 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⁴⁰⁾ 또한 국립극동역사기록관의 직원들은 1996년에 중국 뻬이징에서 개최된 아키비스트 회

39) А. А. Торопов, “Роль РГИА ДВ в развит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in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рхивы : прошлое-будущему : материалы симпозиума историков и архив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10 сентября 2003 г.)*, p. 20.

40)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научн. трудов*. Том II, (1997).

의에 참가하였고, 1997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근대의 한인 국외이주 및 한인공동체”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2000년 11월에는 역시 서울에서 개최된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사실 국립극동역사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들은 러시아측보다는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을 위해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록관에는 한인이주 및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은 양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일부 기록물은 2000년 11월의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숍에서 토로토프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장이 발표한 “러시아 극동 지방의 조선인 이주민 관련 문서자료(1860-1937년)에서 소개된 바 있다.⁴¹⁾ 그리고 이곳에 소장된 기록물 중 한국사와 관계된 자료 중 일부는 이미 톱스크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끌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해제집까지 출간되기도 하였다.⁴²⁾

이처럼 러시아국립극동기록관은 많은 귀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간의 확보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는 톱스크에서 기록관이 옮겨올 때 연해변강주 기록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기록물을 소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하여 2002년에 극동의 유일한 박사협의회인 “러시아학술원 극동주 분원인 극동역사, 고고학, 인류학연구소의 역사학 분과 특별학위심사위원회”가 연해변강주

41)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숍 -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 협력방안』 (서울, 2000), 43~54쪽.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러시아편』 자료 34, 35 (서울, 1997); 최덕규, 『러시아 국립극동 역사문서 보관소 한인 관련 자료 해제집』 (서울: 고려학술문화재단, 2004).

및 블라디보스토크시 당국에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의 공간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였다.⁴³⁾

5. 나오는 말

앞서 살펴본 바처럼, 연해 지방에서의 기록관리업무는 이곳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던 초창기부터 각종 기록관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이런 기록물들이 오늘날 연해 지방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직후의 혼란으로 인하여 기록관리업무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연해 지방에서 기록관리기구의 설치에 앞장선 사람들은 게오르기예프스키와 같은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극동공화국 정부는 마침내 1921년 말에 “연해주 기록관리 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를 승인하였다. 1922년에 말에 시베리아내전이 종식되고 극동 지방에 소비에트 권력이 회복되었을 때에도, 연해주 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1923년 3월 1일에 새로 발족된 연해주 기록관리사무국을 통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특히 게오르기예프스키는 초창기에 기록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활발한 기록물 수집운동을 펴는 등 이 지역의 기록관리업무가 토대를 잡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해 지방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러시아

43) “Архиву - Мест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ращение ученых-историк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гю Владивостока”, *Россия и АТР*, No. 2 (2000), p. 145.

혁명 직후의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진 민간인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들어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해 지방의 기록관리업무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었다. 한편으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소련의 기록관리기관이 내무인민위원부에 소속됨으로써, 기록물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커졌다. 또한 독소전이 발발하고 만주국을 세운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되던 1941년부터 극동 지방의 주요 기록물은 톱스크, 옴스크, 미누신스크 등 서시베리아로 이송되었다. 그에 근거하여 1943년 8월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이 톱스크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개(疏開) 작업 등을 통하여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연해변강주 기록관의 활동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소련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해 지방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게 되었고, 기록물에 대한 목록작업 및 기술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해변강주 기록관은 각종 기록물을 편찬해내고, 기록관리 홍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43년에 톱스크에 설치된 중앙국립극동기록관 역시 2차 대전 이후에 극동 지방과 관련된 기록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자료집을 통하여 기록물을 출간해냈다. 그러나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은 극동 지방이 아닌 서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므로 이미 1960년대부터 극동기록관을 톰스크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91년에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장관협의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은 1992년에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으로 개칭되어 톰스크에서 이송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 기록관은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 통보』 등 각종 기록물을 편찬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 지방에서의 기록학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기록물들은 한국근현대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느니 만큼, 한국사 연구를 위해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연해변강주의 기록관리업무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결과, 우리는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의식 있는 개인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기록관리업무는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연해 지방의 역사를 일구어 온 구성원들의 온갖 노력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린 다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한국사와 관련된 많은 귀중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들의 눈물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연해변강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만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지역의 기록관리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 in the Primorskii Krai of the Russian
Federation**

Cho, Ho-yeon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s in the Primorskii Krai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history of the archives in this region might be divided into the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extended from the territorial acquisition of the Far East to 1938,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ached the crisis. From then to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history of the archives of the Primorskii Krai underwent the second period. The third period has ranged from 1945 to the present day.

As the imperialistic countries, including England, Germany and Russia, claimed and conquered the lands in China in the last decad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Russian government was forced to produce a lot of records, which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veral archival institutions in the Far East region. Although the Soviet government issued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rchival Affairs in the Russian Socialist Federated Soviet Republic” in 1918, the political turmoils prevented the Primorskii region from constructing the archival system. However, A. P. Georgievskii and his colleagues made desperate efforts to arrange the archival administration. Thanks to their struggles, the Far Eastern Republic, a buffer state, which existed from April 6, 1920 to November 14, 1922, passed the autonomous regulation, which defined the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e Primorskii region. The Primorskii Krai Archive originated from the committee.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came aggravated in the East Asia, the Soviet government made a decision to evacuate the records from the Far East region to the western Siberian cities like Tomsk, Omsk and Minusinsk. It was on August 1943 that the Central National Archive of the Far East of RSFSR was established in Tomsk.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main archival institutions of the Primorskii Krai, that is, the Central National Archive of the Far East of RSFSR and the Primorskii Krai Archiv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is region. The archivists have not only prepared the catalogues, but also proceeded the descriptions of the archival collections. Furthermore, the archival institutions of the Primorskii Krai have published a series of archive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archives of the Primorskii Krai,

reaching were the products of the desperate efforts which the archivists of this region made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changes.

K C I